



### <36th WHITE NOISE : 눈 먼 입 Eyes Far Lips>

이 전시의 설치를 진행하기 바로 직전에 필자는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다. 언제나 여행이 끝나면 당시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여행의 모든 순간이 다 꿈만 같다. 애초에 내 생활과 일의 환경에 해당하는 땅을 벗어난 적이 없는 듯 말이다. 그러면 그간의 과거 흔적들을 열심히 탐한다. 탐하는 방법에는 별 게 없다. 책추에 좋지 않은 자세로 핸드폰을 켜 채, 지나온 사진을 보는 것이다. 물론 여러 구겨지고 찢어진 물증들이 있지만, 그 안에는 확실한 내가 없다. 그나마 있는 내가 박제된 몇몇 사진들은 더욱 기억과의 대조 및 검열의 필요성을 강화한다. 우습게도 그럼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된다. 대체 나는 언제, 어디에 있었던가.

그 때부터 나를 기억해내기 위한 집을 짓기 시작한다. 머릿속에 남아있는 자료를 참고해 기록해뒀던 공간의 이미지들을 벽체로 삼아 세운다. 그 안의 디테일한 요소들에 불륨감을 각기 다르게 부여하며 입체감을 만들어준다. 좀 더 들여다보고 싶은 어떤 것들은 아예 이미지에서 추출해 부피와 폭을 주고 잘 다듬어 가구 삼아 배치해본다. 사실, 그러다보면 시작점이었던 이미지 벽체들에는 거의 남는 게 없어진다. 새하얀 콘크리트 벽처럼.

집을 짓는 데 도움될 만한 정보들이 있을까 싶어 여행 동안의 일기를 뒤적거려본다. 나의 문장들은 갈수록 간결해진다. 글의 이해와 무게를 떠나서 각각의 문장이 조용히 자립하여 쓰여 있을 바라기 때문이다. 짧고도 단단한 문장들은 종종 수식에 있어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위치를 바꿔도 다른 맥락으로 의미를 전달하기도 한다. 그러한 문장배치와 단어선택의 가능성을 모두 축적해보면 활자는 그냥 검은색 자체가 될 터이다.

어느 정도 집이 완성되었다. 그 안에 나를 세워본다. 간간이 벽체들 사이로 샌 탈색된 한숨과 바람소리가 콧볼 밑을 스쳐간다. 어딘지 발등을 덮을 정도로 찰랑이는 불편함이 있다. 벽체를 바꾸고 가구를 바꾼다고 될 일이 아니다. 내 동의도 없이 집이 제멋대로 미세하게 바뀐다. 결국 나는 집을 나온다. 그리고 벽의 폭을 응시한다. 보이지 않는 실선에 가까운 벽체의 두께는 놀랍지 않다. 오래 걸리지 않아 나는 아무리 시도해도 내가 있을 견고한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걸 깨닫는다. 시간에 지반을 둔 채로는 나든, 집이든, 무엇 하나는 계속해 변해야했다.

이연석의 이번 전시는 위치럼 불온전한 기억의 집을 짓는 것과 유사하다. 기억이란, 시간이란 신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일이다. 마치 탄탈로스가 신들의 능력을 계속 시험하려는 것처럼 말이다. 시간의 존재를 수긍하는 동시에 의심하며 영원불변함을 확인하고자하고 그와 이뤄질 수 없는 완벽한 일치를 꿈꾸는 기억들은 빛과 어둠을 오가며 무너지고 세워진다. 결국 이연석은 기억의 집의 골조인 캔버스에서 재현과 상징을 최대한 털어내고 가볍고 얇은 표피만 남겨 시간 자체를 연기하기로 한다. 떠나간 그림은 제 모습을 바꿔 돌아오지 않고, 연기의 댕가에는 잔혹한 고통이 떠올라지라도, 그는 기억이 불가능해지지 않는 한, 범접할 수 없음에 대한 탐닉이 생의 과업임을 알고 있다. 고로 스스로를 위해 지은 집이 자신을 허락하지 않더라도 그는 집을 부수지 않는다.

마지막 여행지였던 로마에서 공항으로 향하며 카이사르가 살해당한 유적지 '라 로고 아르젠티나' 광장을 지났다. 가장자리를 따라 세워진 펜스에 기대어 내 발밑보다 한참 아래의 일부만 남은 계단과 기둥들을 바라보았다. 바라보기밖에 할 수 없는 유적 속에 신격화되던 황제의 자리를 흔드는 장군이었기에 카이사르는 타살에 이르렀고 그렇게 옥좌에 올랐다. 집이 없는 길고양이들은 길거리 악사의 음악을 분해하며 펜스 사이를 넘나들었고 이번 생애 그 고양이들과 다시 보게 될 일은 없으리란 생각이 날 스쳐갔다.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이 순간, 위 문단에서 했던 질문이, 나의 집이 또 바뀌고 있다. 대체 무엇을 보며 입은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

글 조정민

